



## 변질(?)된 안철수 현상과 정당재편의 가능성

2011년 9월 26일

정한울\_EAI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안철수 후폭풍】 변질된 안철수 현상과 정당재편의 가능성

#### 1. 변질(?) 안철수 현상

- 안철수 잠재력은 유지, 1 : 1 가상대결 시 박근혜 43.7% vs 안철수 42.8%
- 중도 · 무당파의 희망에서 진보 · 민주당 지지층의 대안으로
  - 1:1 대결시 안철수 지지율, 중도층 하락, 진보층 상승 : 진보층 56.3%, 중도 46.5%, 보수 29.1%
  - 한나라당 지지층 : 16.6%, 민주당 지지층 69.9%, 무당파 층 44.8%
- 서울에선 박근혜 35.0% vs 안철수 51.9%, 서울 호남 제외 전 지역에서 박 우세

#### 2. 안철수 후폭풍 : 도전 받는 박근혜 대세론, 민주당의 균열 압력

- 양당 정당지지율 하락 : 한나라당 33.0% 대 민주당 19.4%
  - 민주당 지지하락 폭 커, 2009년 노전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져
- 한나라당에는 구심력, 민주당에는 원심력으로 작용
  - 지지층 결집도에서 차이: 보수층의 한나라당 지지 48.1%,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 22.7%
  - 한나라당 지지층의 59.4% 박근혜 지지, 민주당 지지층 27.7% 안철수 지지, 14.0% 손학규 지지
- 제 3 정당 필요하다 44%. 한나라당 지지층 29.1%, 민주당 지지층 47.2%, 무당파 50.5%
- 여야 신뢰회복 위한 최우선 과제: 당 자성과 개혁방안 마련이 우선

### 【경제위기가 선거 정국에 미치는 영향】

#### 1. 체감경제의 악화

- 1년 전에 비해 국가경제 “악화되었다” 59.4%, 가정경제 “악화되었나” 36.5%

#### 2. 정권심판론의 강화 및 정당개편 압력으로 작용

- 가정경제 악화되었다는 층의 69.5% “정권심판론 공감”
- 가정경제 악화되었나는 층의 49.5% “제3정당 필요하다”

### 【현안】

#### 1. MB 지지율 37.3%, 평창올림픽 유치 후 2달 연속 하락세

- 측근비리 “이전 정부보다 심하다” 32.2%, “차이 없다” 46.6%, “심하지 않다” 16.0%

#### 2. 박전대표 서울시장 지원 “바람직하다” 41.1%, 한나라지지층 61.1%

#### 3. 손학규 대표 양보 정치 “잘한 결정” 50.7% vs “잘못한 결정”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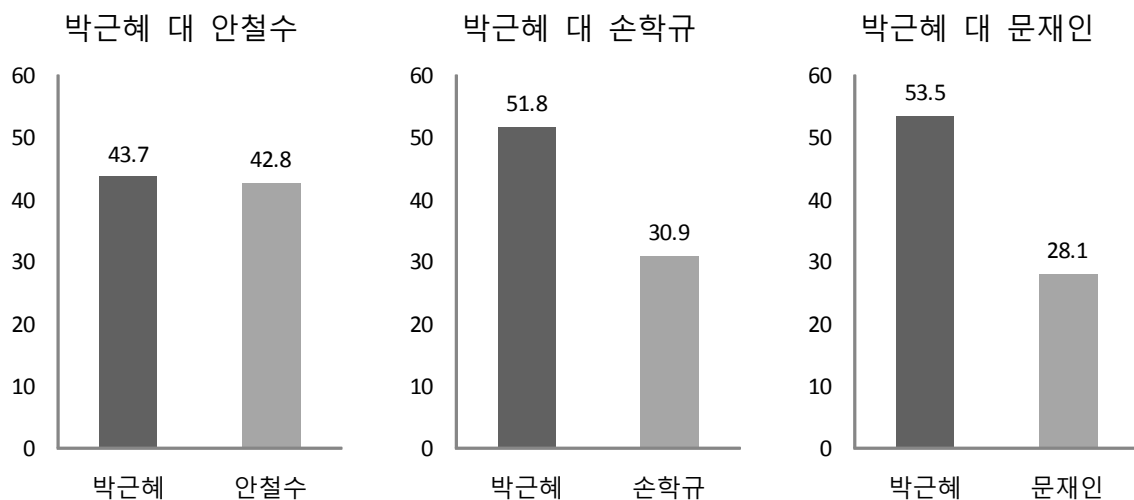


## 【안철수 현상의 후폭풍】 변질된 안철수 현상과 정당재편의 가능성

### 1. 변질(?) 안철수 현상 : 중도/무당파의 희망에서 진보/야당의 대안으로

- 안철수 잠재력은 유지 : 1 : 1 가상대결, 박근혜 43.7% vs 안철수 42.8%
- 안철수 원장은 사퇴했지만 그 위력은 여전했다. 차기 대선 주자 중 박근혜 전 대표와 안철수 원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 문재인 이사장을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단일후보로 가정하여 1 : 1 가상대결 시 지지율을 살펴 본 결과 43.7% 대 42.8%로 초박빙의 대결 구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 대 손학규 대표와의 대결에서는 51.8% 대 30.9%, 박근혜 전대표 대 문재인 이사장과의 대결에서는 53.5% 대 28.1%로 박전대표의 우세가 두드러진다.

[그림1] 차기 대선 여야 1:1 가상대결



- 안철수 현상의 변질: 중도/무당파의 희망에서 진보/민주당 지지층의 대안으로
  - 중도층, 무당파 층에서는 과반에 못 미쳐
  - 진보층의 56.3%, 민주당 지지층에서 68.9% 기록
- 9월 초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후보와의 서울시장 단일화 직후의 박근혜 전대표와의 1:1 가상대결을 조사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파 층 및 중간지대 유권자에서 안철수 원장 지지율이 50~60% 대로 나타났다. 무당파, 중도층의 안풍의 진원지로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도층과 무당파층에서의 지지율은 40%대에 머물렀다. 대신 이념적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 민노당 및 진보신당 등 군소 정당 지지층에서 60%를 넘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 이념적으로 보면 진보층에선 박 전대표 32.5%, 안철수 원장 56.3%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 반면, 보



수층에서는 53.5%가 박근혜 전대표 지지, 29.1%만이 안철수 원장을 지지했다. 초기 안철수 돌풍의 주역으로 분석되었던 중도층에서는 박전대표 42.5%, 안철수 원장 46.9%로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의 74.7%가 박전대표를 지지하고 16.6%만 안철수 원장을 지지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4.3%가 박전대표를 68.9%가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군소정당 지지층에서는 박전대표 지지가 29.5%, 안철수 원장 지지가 62.1%로 나타났다. 반면 무당파층에서는 박근혜 전대표 지지가 30.4%, 안철수 원장 지지가 44.8%로 안원장의 우세는 나타났다. 무당파 지지율이 50%에 못미치고 답변을 유보한 응답이 24.7%로 높게 나타났다.

-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지층 구성을 보면 안철수 원장이 중도/무당파에서 안철수 원장의 지지가 약화된 대신, 진보/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중도/무당파 층의 희망에서 이제 진보/야당 지지층의 대안으로 변신(?)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는 안철수 원장이 출마 고려 발표 이후 반한나라당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진보/야당층의 기대와 지지를 결집시킨 반면, 반한나라당, 반민주당이라는 기존 정당 모두에 불신하고 있는 중도/무당파 층에서는 오히려 지지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표1] 집단별 박근혜 : 안철수 지지비율(%)

	박근혜	안철수	없음 모름
<b>전체</b>	<b>43.7</b>	<b>42.8</b>	<b>13.5</b>
<b>세대</b>			
20대	29.8	<b>59.6</b>	10.6
30대	28.3	<b>60.8</b>	10.9
40대	40.9	<b>46.6</b>	12.5
50대	<b>50.4</b>	32.9	16.7
60대 이상	<b>70.2</b>	12.9	17.0
<b>거 주 지</b>			
서울	35.0	<b>51.9</b>	13.1
인천/경기	<b>47.2</b>	40.8	12.0
대전/충청	<b>47.2</b>	40.6	12.3
광주/호남	24.1	<b>56.2</b>	19.7
대구/경북	<b>55.8</b>	32.4	11.8
부산/경남	<b>48.8</b>	39.0	12.2
강원/제주	<b>55.2</b>	23.4	21.4
<b>이념성향</b>			
진보	32.5	<b>56.3</b>	11.1
중도	42.5	<b>46.9</b>	10.6
보수	<b>53.5</b>	29.1	17.4
<b>정당지지</b>			
한나라당	<b>74.7</b>	16.6	8.7
민주당	24.3	<b>68.9</b>	6.7
군소정당	29.5	<b>62.1</b>	8.4
무당파	30.4	<b>44.8</b>	<b>24.7</b>



● 안철수 : 서울/호남, 2030세대에서 강세

서울에선 박근혜 35.0% vs 안철수 51.9%, 서울 호남 제외 전 지역에서 박 우세

전체 차기대선 지지도: 박근혜 32.0% > 안철수 20.1% > 문재인 6.3% > 손학규 4.8% > 정몽준 4.0% 순

-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호남이, 세대별로 보면 20/30세대가 안철수 원장의 지지기반 역할을 하고 박 전대표의 경우 TK에서 초강세를 PK, 경기, 충청권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40대와 이념적 중도층에서는 안원장이 다소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박전대표와 오차 범위 내에 머물렀다.
- 한편, 전체 차기대선 지지도에서는 박근혜 전대표가 32.0%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안철수 원장이 20.1%로 20%대로 올라섰다. 안원장 등장 이전까지 상승세를 타던 문재인 이사장이 6.3%로 3위, 손학규 대표가 4.8%로 뒤를 이었고,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정몽준 전대표가 4.0%로 여권 주자로는 2위, 전체 5위에 올라섰다. 한 때 전체 지지율 2,3위를 달렸던 유시민 대표가 2.8%, 김문수 지사는 2.7%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표2] 전체 차기 대선 지지도(%)

	2011년											
	순위	9월	순위	8월	순위	7월	순위	6월	순위	5월	순위	4월
박근혜	1	32.0	1	34.6	1	34.6	1	37.1	1	35.3	1	35.8
안철수	2	20.1	-	-	-	-	-	-	-	-	-	-
문재인	3	6.3	2	9.0	4	5.6	6	4.1	8	2.6	-	-
손학규	4	4.8	3	6.3	2	8.2	2	8.0	2	12.0	2	11.5
정몽준	5	4.0	9	2.9	10	2.1	8	3	10	2.0	5	3.7
유시민	6	2.8	5	4.5	6	4.6	5	4.3	5	4.6	3	7.1
김문수	7	2.7	7	4.1	3	5.7	7	3.5	6	4.1	7	3.2
한명숙	8	2.0	4	5.3	7	3.5	3	5.7	3	5.1	6	3.6
이회창	9	2.3	8	3.8	8	3.1	9	2.7	8	2.6	7	3.2
정동영	10	1.0	10	1.9	9	3.0	10	2.1	7	3.0	9	1.7
김두관	11	0.7	11	1.5	11	0.9	11	0.8	11	1.8	8	1.8
이재오	12	0.5	13	0.1	12	0.6	12	0.3	12	0.4	10	0.4
정세균	13	0.3	12	0.4	13	0.4	13	0	13	0.2	11	0.1
오세훈	-	-	6	4.3	5	5.0	4	4.8	4	4.7	4	5.1
기타/없음	-	20.3	-	21.4	-	22.7	-	23.5	-	21.6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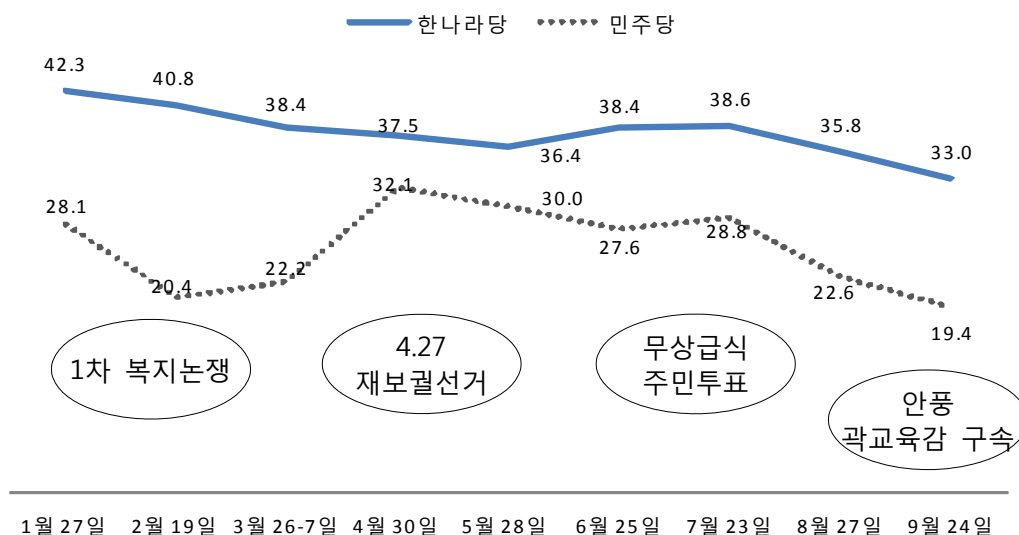
## 2. 안철수 후폭풍 : 도전 받는 박근혜 대세론, 민주당의 균열 압력

### ● 양당 정당지지율 하락 : 한나라당 33.0% 대 민주당 19.4%

민주당 지지하락 폭 커, 2009년 노전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져

- 안철수 현상이 정당체제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대세론이 안철수 원장에 의해 도전받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야권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복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 유리한 국면임은 틀림 없다.
- 그러나 여야, 특히 민주당 지도부나 소속 정치인들의 표정이 밝을 수만은 없다. 안철수 원장이 부각되면서 손학규 대표나 문재인 이사장 등 기존 야권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당 지지율에서 보면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나 야권 정당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던 7월 조사에서 38.6%, 8월 조사에서 35.8%였고, 이번 조사는 33.0%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민주당 역시 7월 조사에서 28.8%, 무상급식 직후 8월 조사에서 22.6%로 떨어지고, 이번 9월 조사에서는 19.4%까지 내려가 본 EAI-한국리서치가 정기조사에서 2009년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이후로는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한나라당이 7월 조사 대비 5.6%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9.4%포인트 하락했다.

[그림2]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변화 추이(%)



### ● 한나라당에는 구심력, 민주당에는 원심력으로 작용

지지층 결집도 차이: 보수층의 한나라당 지지 48.1%,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 22.7%

한나라당 지지층의 59.4%가 박근혜 지지, 민주당 지지층의 27.7% 안철수 지지, 14.0% 손학규 지지

- 표면적으로 안풍이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기반차원에서 민주당의 타



격이 큰 이유는 무엇보다 안풍의 성격이 중도/무당파층의 희망에서 진보/야당 지지층의 대안으로 전환되면서 민주당 지지기반 중의 한 축인 진보/야당 지지층에서 이탈 폭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

-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에서는 안풍 이후 한나라당 지지율은 8월 53.0%에 비해 4.9%포인트 하락한 48.1%에 그쳤지만 여전히 과반에 가까운 결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안풍 이전 8월 조사에서도 진보층의 30.9%가 민주당 지지를 밝혔는데, 이번 9월 조사에서는 22.7%로 더 떨어졌다. 진보층에서는 민주노동당 지지가 11.3%, 국민참여당 4.3%, 진보신당 4.2%, 창조한국당 0.6%로 합하면 20.1%로 민주당 지지율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중도층에서는 한나라당 지지가 27.6%, 민주당 지지가 21.7% 수준으로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민주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2030 세대는 물론 지역기반을 해온 호남에서 무당파 층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점도 민주당 지지층 결집의 이완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표3] 전체 차기 대선 지지도(%)

	지지정당									
	한나라	민주당	자유선진	민주노동	미래연합	창조한국	진보신당	국민참여	다른정당	무당파
전체	33.0	19.4	1.4	4.2	1.2	0.1	1.3	2.2	4.7	32.5
이념 진보	22.0	22.7	0.6	11.3	1.8	0.6	4.2	4.3	3.8	28.8
중도	27.6	21.7	1.9	2.8	1.2	0.0	0.8	1.7	4.7	37.5
보수	48.1	13.6	1.2	1.3	0.9	0.0	0.0	1.7	4.1	29.1
세대 20대	25.8	22.8	1.4	3.3	1.4	0.7	0.0	1.3	4.7	40.7
30대	22.6	21.4	0.0	7.9	0.7	0.0	4.5	2.3	4.6	36.0
40대	26.0	22.3	1.1	5.8	0.6	0.0	1.1	3.8	6.7	32.6
50대	39.1	17.0	0.7	3.5	1.5	0.0	0.6	2.1	4.0	31.5
60대 이상	53.1	13.1	3.7	0.0	2.0	0.0	0.0	1.3	3.1	23.7
지역 서울	32.1	23.2	0.6	4.2	0.6	0.6	1.8	0.6	5.9	30.4
경인	32.5	19.4	2.2	4.4	0.9	0.0	0.9	2.7	2.7	34.3
충청	29.8	17.0	2.4	2.9	4.3	0.0	0.0	3.3	7.2	33.3
호남	5.9	38.1	0.0	5.0	1.2	0.0	3.8	1.3	6.9	37.9
TK	49.7	7.3	2.5	3.6	0.0	0.0	0.0	0.0	1.2	35.7
PK	40.3	11.7	0.8	5.5	0.8	0.0	1.7	3.8	6.9	28.6
강원/제주	47.1	20.1	0.0	0.0	3.7	0.0	0.0	6.6	0.0	32.6

#### 한나라당은 박근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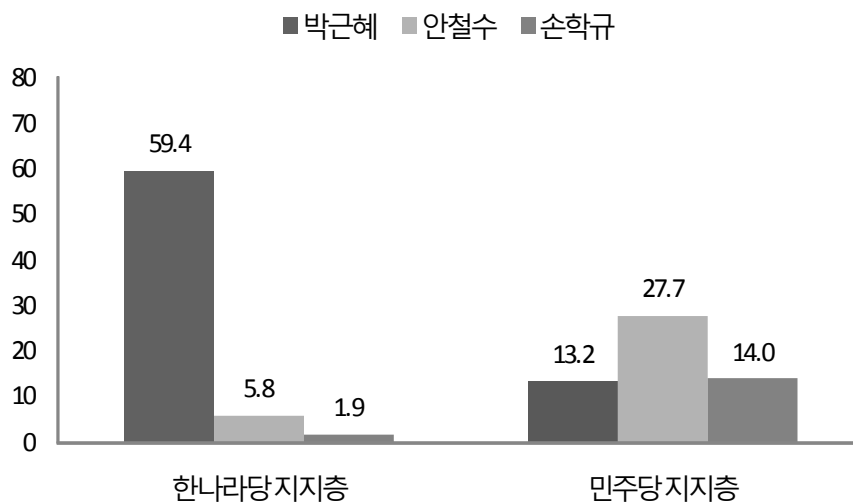
- 한나라당의 경우 여전히 견고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전대표를 중심으로 지지층의 결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제3정당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진보/야권의 경우 마땅히 앞서가는 대선주자가 없다는 것이 선거 국면에서 원심력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경우 자체 정당시스템 속에서 차기주자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외부에서 후보를 물색해온 것이 사실이다. 2006년 강금실이 그랬고, 2007년 손학규 대표가 그랬으며



현재도 마찬가지다. 외부영입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철수 원장, 박원순 후보처럼 정당 영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경쟁력 후보를 갖지 못한 민주당으로서는 제1야당의 위상에 맞지 않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 가상의 1:1 대결구도가 아닌 현재의 대선주자 전체를 놓고 지지율을 조사해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을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59.4%가 박근혜 전대표 지지하고 안철수 원장 지지는 10.9%에 그쳤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중 안철수 원장 지지가 27.7%로 가장 높았고, 손학규 대표 지지가 14.0%, 박근혜 전 대표 지지 13.2%, 문재인 이사장 지지 7.4% 순이었다. 한나라당에 비해 지지층 사이의 원심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림3] 한나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박근혜, 안철수, 손학규 후보 지지율(%)



● 제3정당 압력도 커져 : 제3정당 필요하다 44.0% 대 필요 없다 52.2%

새로운 정당 요구 야당 지지층에서 커: 제3정당 필요하다 한나라당 지지층 29.1%, 민주당 지지층 47.2%

-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 속에 안철수 돌풍이 커지면서 한나라당, 민주당 및 기존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의 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 민주당 및 기존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44.0%, 필요 없다는 입장이 52.2%로 필요 없다는 주장이 다소 많기는 하다. 그러나 열 명 중 네 명 정도가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정당체제 개편의 압력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주목할 점은 한나라당 지지층 보다는 민주당 지지층, 보수층 보다는 진보층에서 제3정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아 정당 재편의 압력이 야당에 보다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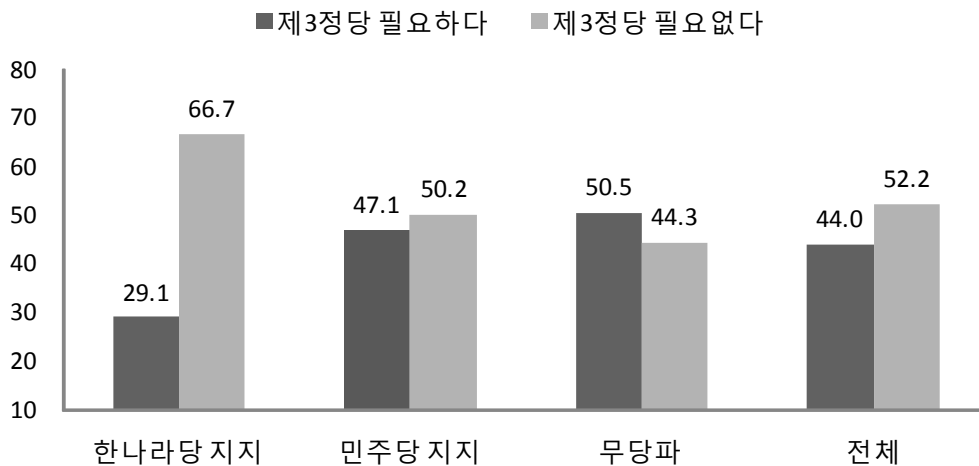




지지층에서는 29.1%만이 새 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7.2%가 새 정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무당파 층에서는 50.5%가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답해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제3정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2.5%, 중도층에서는 41.2% 수준이었다. 그러나 진보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5.5%로 과반을 넘었다.

- 만약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는 조건에서 제3정당 창당에 나설 경우 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선거 국면의 특성 상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당의 구심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는 선거국면에서 민주당의 주도권 발휘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당한 내부 균열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4] 지지정당 별 제3정당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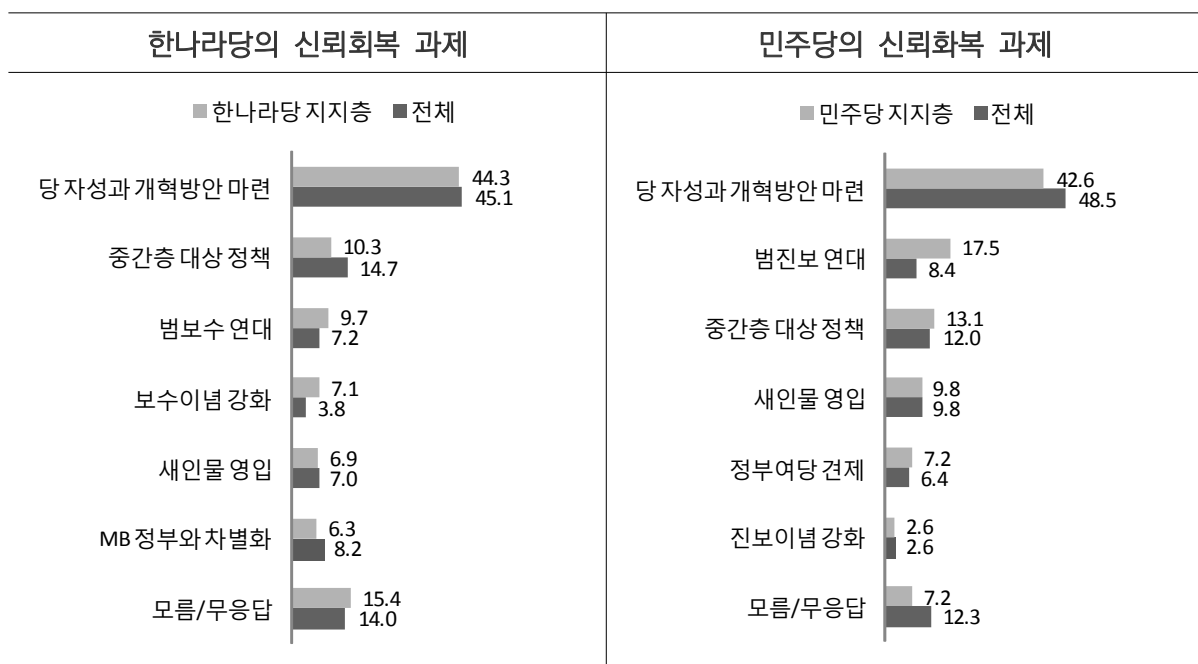
#### ● 신뢰회복 위한 최우선 과제: 당 자성과 개혁방안 마련이 우선

- 국민들은 이러한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정책적 변화나 외부 세력과의 연합, 외부인사 영입 보다도 당 스스로의 자성과 개혁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보다 신뢰받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44.3%, 전체 응답자의 45.1%가 당내부의 자성과 개혁방안이 시급하다고 답했고, 한나라당 지지층의 10.3%, 전체응답자의 14.7%는 중간층 대상의 정책 강화를 꼽았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9.7%, 전체응답자의 7.2%가 범보수세력의 연대가 시급하다고 답했고, 보수이념을 강화하라는 응답은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7.1%, 전체 응답층에서는 가장 낮은 3.8% 였다. 새인물 영입이라는 응답은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6.9%, 전체 응답자 층에서 7.0%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8.2%는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꼽은 응답이 6.3%로 가장 낮았지만 전체 응답층에서는 8.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슷한 응답 패턴이 발견되는 데 민주당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42.6%, 전체응답자의 48.5%는 당내부의 자성과 개혁방안이 최우선이라고 보았다. 범진보 연대에 대해서는 당지지층과 전체 유권자의 응답이 엇갈리는데 지지층에서는 17.5%, 전체 응답층에서는 8.4%에 그쳤다. 중간층 대상 정책강화를 꼽은 응답은 당지지층에서 13.1%, 전체응답층에서 12.0%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새인물 영입이라고 꼽은 응답은 양집단에서 공히 9.8%였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강화를 꼽은 응답은 당지지층에서 7.2%, 전체응답층에서 6.4%였고, 진보 이념의 강화를 꼽은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2.6%, 전체 응답층에서 2.6%였다. 무엇보다 당 스스로의 반성과 개혁 노력 없이 현 정당체제에 대한 불신을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5] 각 당이 더 신뢰받기 위한 시급한 과제 : 전체 및 각당 지지층의 응답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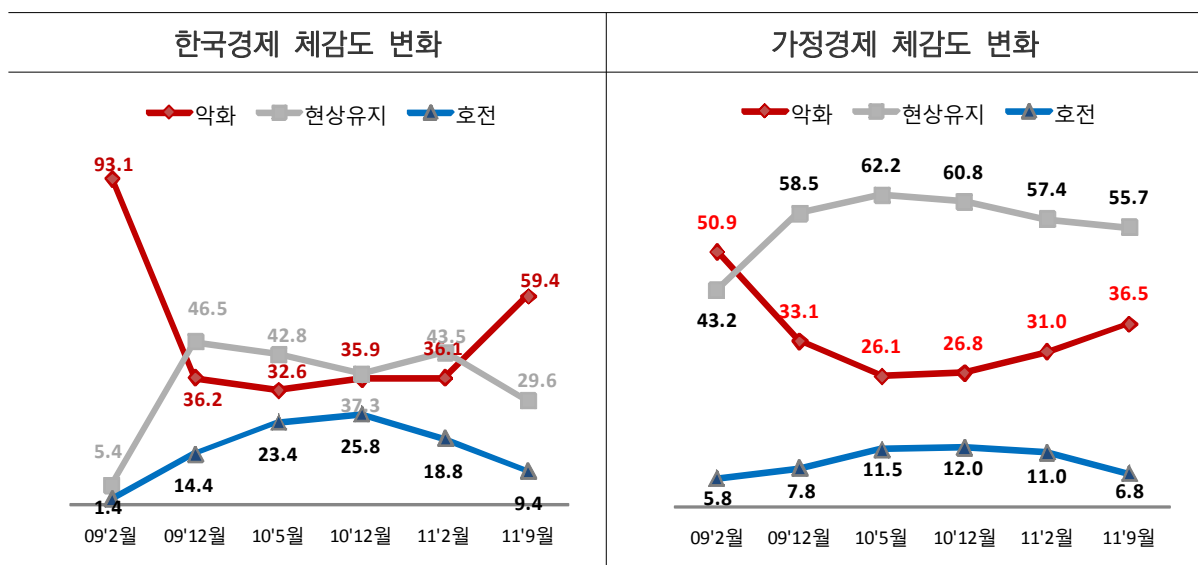


## 【경제위기가 선거 정국에 미치는 영향】

### 1. 체감경제의 악화: 1년전 대비 한국경제 나빠졌다 59.4%

- 현재 국민들의 체감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 상태에 평가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추세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체감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완만하지만 개선되는 추세였다. 세계금융위기 직후 조사인 2009년 2월 조사에서 1년 전에 비해 한국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93.1%에 달했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는 체감경제가 호전되어 2010년 12월 조사에서는 한국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25.8%까지 늘어나고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35.9% 수준까지 떨어졌다.
- 그러나 올해 2월부터 전세대란, 물가대란 등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환율 및 금리 불안, 원자재 가격 불안이 겹치면서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이번 9월 조사에서 호전되었다는 여론은 9.4%까지 줄어들고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59.4%까지 올라갔다.
- 한편 가정경제인식도 개선의 폭은 크지 않았지만 2010년 5월에는 가정경제상태가 나빠졌다는 여론이 26.1%까지 떨어질 정도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나빠지고 있다는 여론이 2011년 2월 조사에서는 31.0%로 올랐고, 최근 4-5개월 동안에는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36-37% 수준을 오가고 있다. 이번 9월 조사에는 가정경제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36.5%로 나타난 반면 호전되었다는 평가는 6.8%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림6】 한국경제 및 가정경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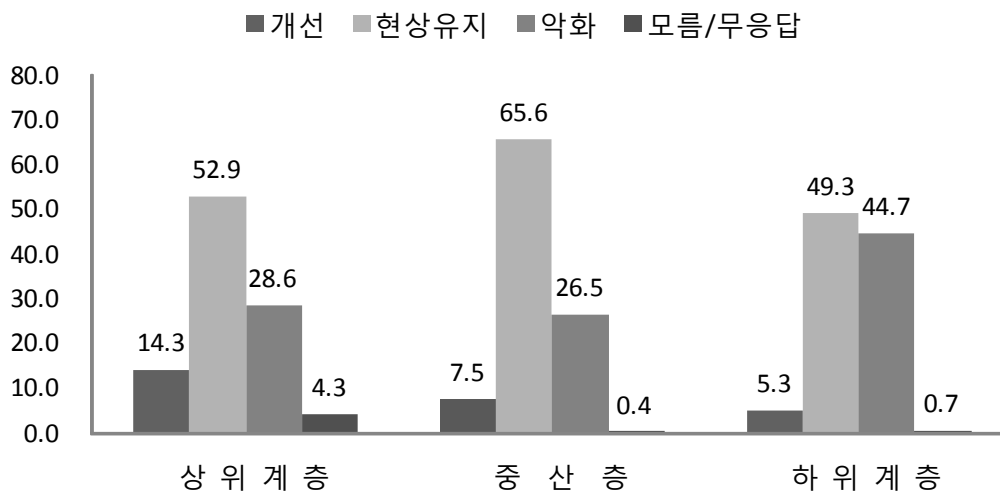


## 2. 경제악화가 선거정국에 미치는 영향

### ● 경제 양극화의 심화

- 경제적 체감도의 악화는 현 정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계층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적 갈등의 소지를 강화시킨다. [그림7]처럼 실제 상위계층에서는 1년 전에 비해 가정경제상태가 나아졌다는 응답이 14.3%,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52.9%, 나빠졌다는 응답은 28.6%였다. 중산층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데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7.5%,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65.6%로 가장 많았고, 나빠졌다는 응답은 26.5%로 상위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하위계층에서는 좋아졌다는 응답은 5.3%에 그치고,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48.3% 수준이었다. 대신 나빠졌다는 응답이 44.7%로 상위계층이나 중간층에 비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7] 계층별 가정경제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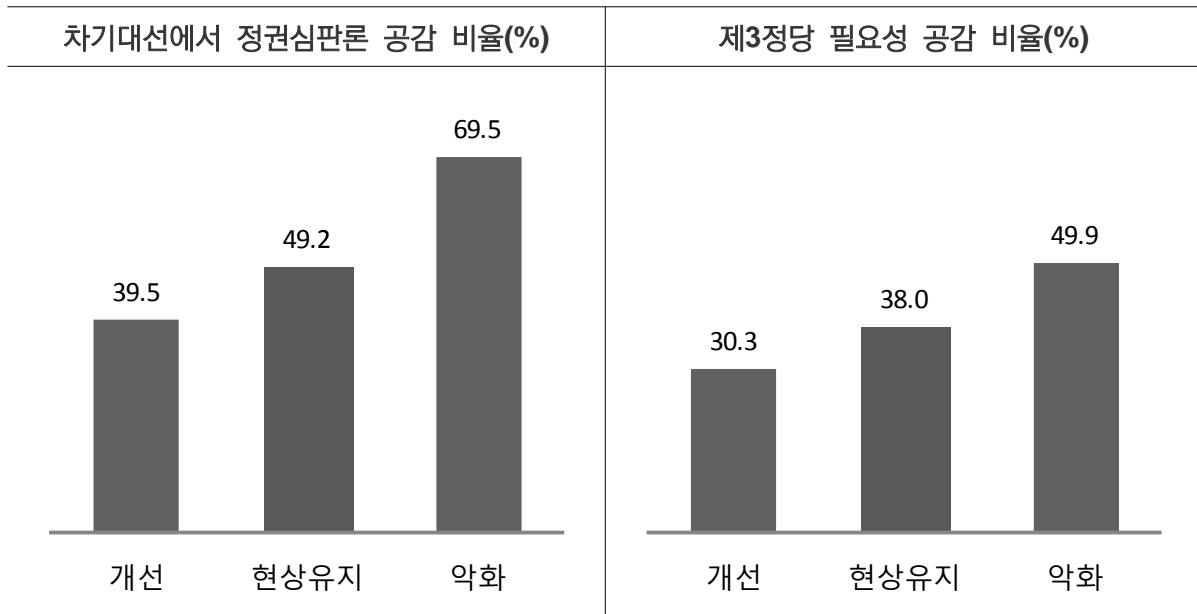
### ● 정권심판론의 강화와 정당체제 개편 압력 강화

- 또한 체감경제의 악화는 정치적으로 주목할 만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체감경제의 악화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기존 정당 대신 제3정당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시켜 정당체제 개편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림8]에서 가정경제 인식에 따라 정권심판론의 강도가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가정경제상태가 좋아졌다는 응답층에서는 정권심판론에 대한 공감도가 39.5%에 불과했지만, 현상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층에서는 49.2%이며, 가정경제가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층에서는 정권심판론에 공감하는 비율이 69.5%에 달하고 있다.
- 한편 가정경제의 체감도는 제3정당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정경제가 좋아졌다고 답한 응답층의 30.3%, 현상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층의 38.0%가 기존 정당이 아닌 제3정당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1년 전에 비해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층에서는 과반에 근접한 49.9%가 제3정당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결과적으로 가정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다고 볼수록 정당재편에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8] 가정경제 인식별 정권심판론 및 제3정당 필요성에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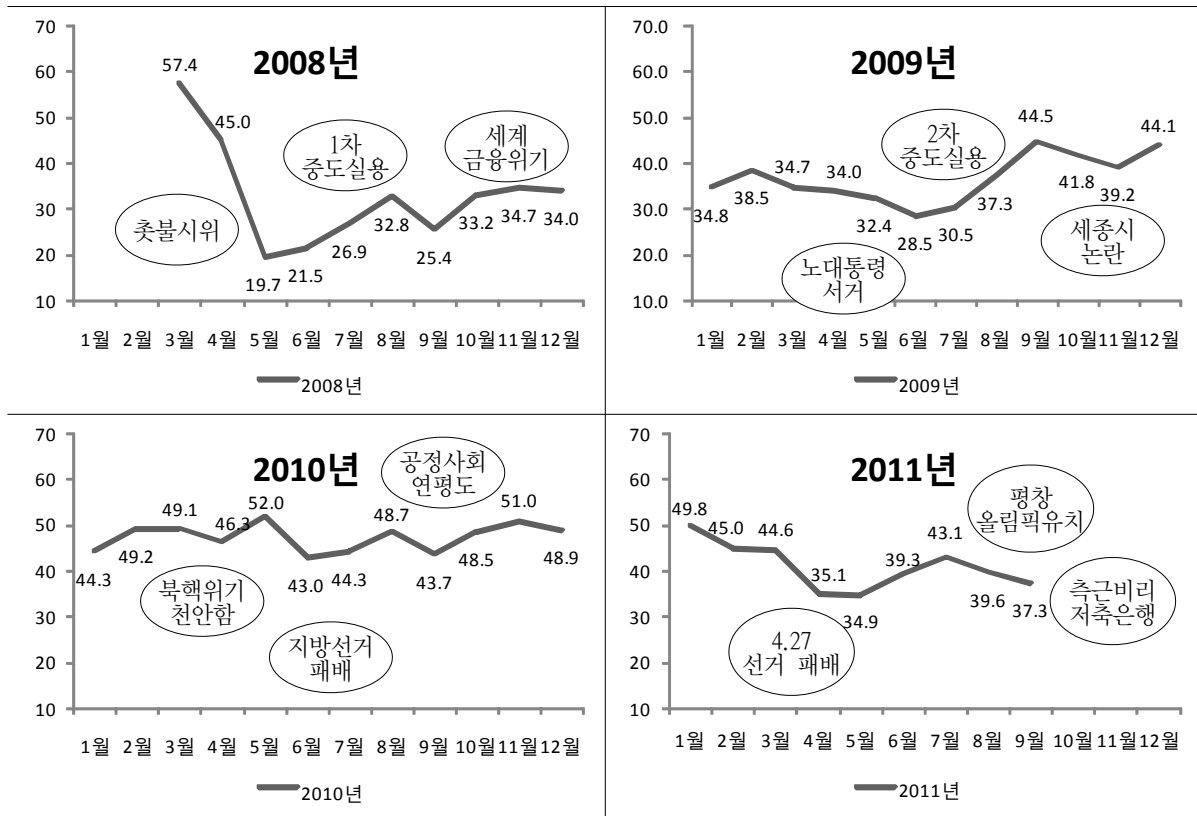
## 【현안】

### 1. MB 지지율 37.3%, 평창올림픽 유치 후 2달 연속 하락세

- 측근비리 “이전 정부보다 심하다” 32.2%, “차이 없다” 46.6%, “심하지 않다” 16.0%
-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평창올림픽 유치 후 43.1%까지 회복되었지만 이후 체감경제 악화 및 최근 불거지고 있는 측근비리, 저축은행 사건 등으로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 등 측근비리는 특히 집권말기 국정지지율을 크게 잠식하는 요인일 뿐 아니라 레임덕을 심화 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 이번 조사에서 이전 정부에 대비하여 현 정부의 측근비리에 대한 상대적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물어 본 결과 이전 정부보다 심하다는 응답이 32.2%로 이전 정부보다는 심하지 않다는 응답 16.0%의 두 배에 달했다. 앞으로 정부여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만 절반에 가까운 46.6%는 이전 정부와 차이가 없다고 답해 정권 말 측근 비리를 만성화된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림9]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변화(%)



## 2. 박근혜 전대표 서울시장 지원 “바람직하다” 41.1%, 한나라지지층 61.1%

-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박근혜 전대표가 서울시장 지원유세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1%가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 13.6%, 대체로 바람직 27.5%)고 본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48.8%(별로 바람직 안함 32.5%,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6.3%)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1.1%(매우 바람직 26.8%, 대체 바람직 34.2%)로 높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30.3%(별로 바람직 하지 않다 22.2%,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8.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1.9%(매우 6.6%, 대체로 25.4%), 바람직 않다는 응답은 62.5%(별로 35.0%, 전혀 27.5%)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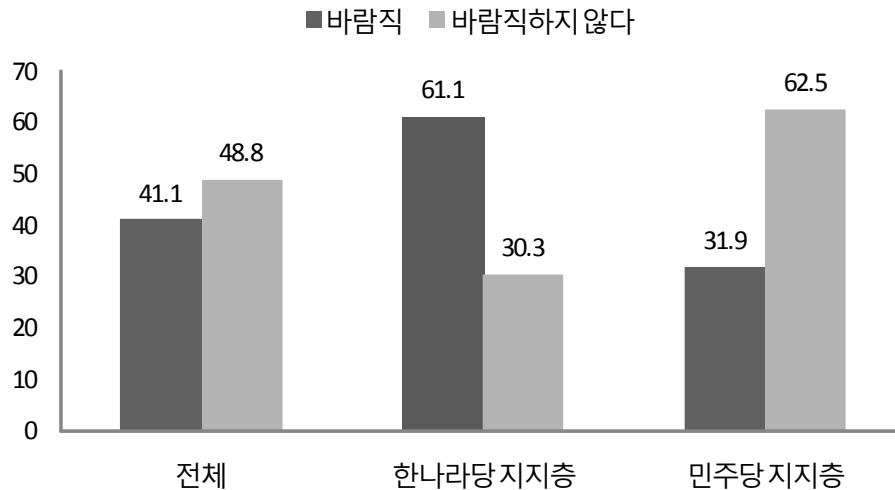
## 3. 손학규 대표 양보 정치 “잘한 결정” 50.7% vs “잘못한 결정” 27.3%

- 최근 몇 차례 무산되었던 양승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양당의 실력대결이 아닌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손학규식 “양보정치”로 칭하며 정치적 양보와 타협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론의 반응도 우호적이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0.7%(매우 잘한 결정 18.0%, 대체로 잘한 결정 32.7%)로 과반이었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27.3%(별로 잘한 결정이 아니다 22.6%, 전혀 잘한 결정이 아니다 4.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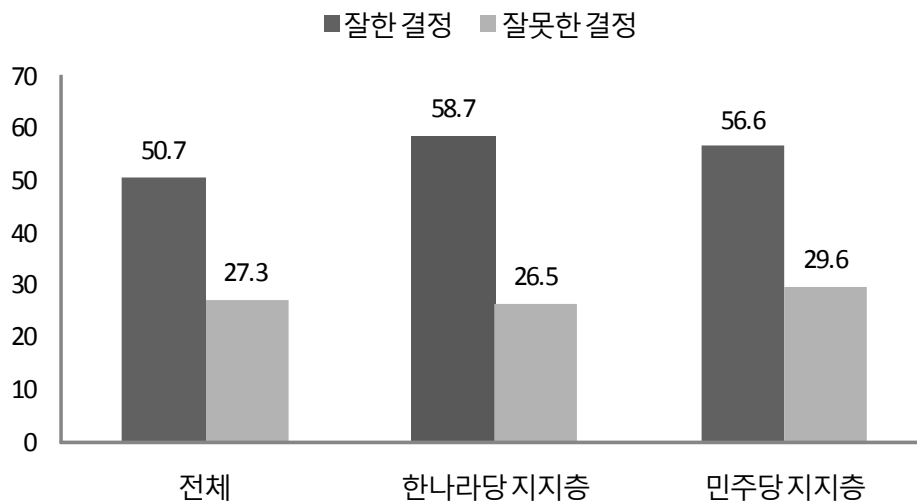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56.6%) 뿐 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지지층(58.7%)에서 높게 나와 여론 역시 갈등일변도의 정치에 대한 불신 속에서 양보와 타협의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박전대표의 서울시 보궐선거 유세지원에 대한 입장(%)



[그림 11] 손학규 대표 양승태 대법관 임명동의안 양보에 대한 평가(%)



## 2011년 EAI 단행본 시리즈

- 여론티분석6. 이내영·임성학(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EAI  
 여론티분석7. 강원택·이내영(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티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EAI  
 외교안보시리즈 9. 이동률(편)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서울: EAI  
 외교안보시리즈 10. 한상진·이숙종(공편)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서울: EAI  
 외교안보시리즈 11. 하영선(편)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서울: EAI  
 민주대전략 시리즈 11. EAI거버넌스연구팀(저) 《한국의 내셔널 어젠더》 서울: EAI  
 Byung-Kook Kim and E. Vogel (eds).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Sook-Jong Lee and J. Melissen. (eds).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Palgrave Macmillan.

## 2011년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 201103-1호. "역대 정권 레임덕 현상과 4년차 이명박 정부의 과제", 정한울 (2011. 3. 17)  
 201104-1호. "한국사회 이념 무드의 변동과 정치적 함의", 정한울 (2011. 4. 12)  
 201105-1호. "안티 한나라당 세대, 30대의 정치행태 분석", 정한울 (2011. 5. 10)  
 201105-2호. "4.27 재보궐 선거와 중산층의 선택", 정한울 (2011. 5. 10)  
 201106-1호. "한국 정치사회어젠다의 정책선호 지형 : 국민여론과 정치엘리트의 선택", 정한울 · 이곤수 (2011. 6. 20)  
 201107-1호. "서울시민의 무상급식 인식지형 분석과 주민투표 전망", 정한울 (2011. 7. 25)  
 201108-1호. "여론을 통해 본 한미FTA : 국회비준 시기 신중론의 급부상", 정원철 (2011. 8. 03)  
 201108-2호.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식 변동 요인과 전망", 정한울 (2011. 8. 22)  
 201109-1호. "SMART(Swing, Middle, Ambivalent, Responsive, Tricky) 유권자가 서울시장 결정할 것", 정한울 (2011. 9. 21)

## 2011년 EAI 여론티브리핑 시리즈

- 94호. "대통령 취임 3주년 평가 및 집권 4년 전망: 문제는 경제다!" . 정한울·정원철. (2011. 2. 21)  
 95호. "27개국 국민이 바라본 17개국 파워국가의 국제적 평판" . 정한울·정원철. (2011. 3. 7)  
 96호. "2011 파워정치인 신뢰도·영향력 조사" . 정한울. (2011. 3. 28)  
 97호. "4.27 재보궐 선거와 향후 정국 변화 전망" . 정한울. (2011. 4. 30)  
 98호.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정국 변화 평가: 국민여론, 여야 개혁 기대 못 미쳐" . 정한울. (2011. 5.30).  
 99호. "향후 10년 한국사회 핵심 정책 분야." 정원철. (2011. 6. 7)  
 100호. "7·4 한나라당 전당 대회와 현 정국 핵심 이슈" . 정한울. (2011. 6. 27)  
 101호. "최우선 국정아젠다, 핵심은 경제와 삶의 질 : MB 지지율 평창효과와 문재인 부상의 부상" . 정한울·정원철. (2011. 8. 8)  
 102호. "주민투표 이후 복지정국과 계급정치의 부상: 여당 지지층의 박근혜 쏠림 현상과 문재인 신드롬." 정한울. (2011. 8.29)





## EAI 동아시아연구원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매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2009년 2월부터 매달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인식의 분포와 변화를 추적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선호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과정이 필수적이다. 매월 말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를 통해 민의에 기반을 둔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011년부터 YTN·중앙일보와 공동기획으로 진행한다.

### 9월 조사개요

조사일시	2011년 9월 24일 (1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표본추출	지역·성·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pm 3.5\%$
조사방법	유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임의번호걸기방식) 전화면접조사(CATI)
조사기획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 <a href="http://www.eai.or.kr">www.eai.or.kr</a>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a href="http://www.hrc.co.kr">www.hrc.co.kr</a> )
응답율	10.0%

### EAI 정기여론조사 연구팀

팀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서상민(EAI 중국연구센터)
	이곤수(EAI 거버넌스센터)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mailto: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mailto: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mailto:cskim@hrc.co.kr))

